

## 기준금리 0.25%p 인하

### 韓銀, 추가 인하 시사... 환율·증시 '숨고르기'

한국은행이 9일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6·11면〉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와 대규모 보유 외환 투입 등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종일 '볼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25%에서 5.00%로 0.2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 환화를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경기 하강을 최대한 막고 기업, 가계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

한 가능성을 내비쳐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금리 변동이라는 것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있을 수 있어 누적 또는 중기로 보면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신용 경색의 완화 등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사정이 개선되면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금리 인하와 당국의 개입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은 모처럼 안정적 인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만에 하락했으며, 증시는 소폭 상승하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5.50원

떨어진 1,379.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장중 한때 1,485.00원까지 급등했지만 한은의 금리 인하와 정부가 15억~20억달러를 쏟아부으면서 1,440선 이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날 하루 환율 변동폭은 113.00원으로 연중 처음으로 100원을 넘어서는 등 심리적 불안감은 여전했다.

국내 증시도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세로 마감됐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64% 오른 1,294.89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금리 인하 발표 후 한때 1,324.36까지 치솟았지만 막판에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63포인트(0.44%) 떨어진 369.84로 마감돼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 개막을 하루 앞둔 9일 여수 진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 리허설에서 식후공연으로 여수를 상징하는 거북선이 등장, '꿈의 항해를 떠나다'를 주제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국체전 오늘 여수서 개막... 열전 7일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10일 오후 6시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갖고 16일까지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22면〉

'가자 남도로, 뛰자 세계로!'라는 구호를 내건 이번 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와 15개 해외동포, 이북 5도 등 모두 2만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여수를 비롯한 17개 시·군 경기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

개막식에서 성화를 점화할 최종 주자는 2008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와 김중수 국가대표 감독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체전에서는 베이징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올림픽 영웅'들이 대거 참가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 해리클레스' 장미란(고양시청)은 여자

역도 75kg이상급에서 다시 한번 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금빛 윈크' 이용대(삼성전기)는 개최지 전남 대표로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국수영 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서울)은 서울 대표로 출전해 100m와 50m에서 금빛 역영을 펼치고 유도 최민호(한국 마사회)와 사격 진중오(KT), 예비부부인 '신궁' 박경모(인천계양

구경)과 박성현(전북도청), 태권도 스타 황경선(한체대), 손태진(삼성 에스원) 등도 고강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다.

카누와 수중, 세팍타크로 등 3개 종목에 제외한 39개 종목에 출전하는 광주는 1천274(선수 946명, 임원 328명)명의 선수단을 파견, 종합득점 3만여점을 따내 종합순위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최지 전남은 42개 종목에 1천779(임원 445명, 선수 1천332명) 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3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

## 이 대통령 13일 라디오 연설 '경제위기' 대국민 정책 홍보

### 박희태 대표 "정쟁 중단"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3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국민 정책 홍보에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정부의 주요 정책과 비전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사고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국민 접촉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전달

하고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뉴딜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노변 담화'와 유사한 것으로, 라디오를 통해 정답을 나눈듯 국민과 대화를 하는 형식이다.

청와대는 이번 라디오 연설에 이어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설을 한가지 주제를 집

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된다.

이번 주제는 금융·경제위기로 잡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경제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국민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이다.

라디오 방송 시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30분에서 8시 사이로, 10분 정도 분량을 계획하고 있으나 생방송보다는 사전에 녹음을 한 뒤 이를 전(全) 라디오 방송국에 전달, 자율적으로 방송 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중단을 선언하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했다.

박 대표는 "우리 당부터 정쟁중단을 선언하겠다"면서 "금융위기 극복에 정적권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 뚫을리는 모습이 처음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정쟁 중단과 함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 '5+2 보이콧' 파문

### "불공정 진행...영·호남 격차 심화" '선도산업 사업계획서' 제출 거부

광주시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관련, '호남권' 사업 추진을 보류키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는 9일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10일까지 제출을 요구한 '선도산업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는 정부가 호남권 선도시업으로 정한 '광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선도산업'은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에 편성된 3개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자체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시는 "5+2 광역경제권 사업'에서 호남권은 단일권역으로 지정된 데 반해 영남권은 2개 권역으로 나누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돼 영·호남간 산업 격차를 심화시키고 5조원이 투입될 선도시업프로젝트로 선정된 호남권 사업도 호남고속철 건설 등 대부분 기존 사업을 재탕했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시가 이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호남권'에 포함된 전남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새만금 등 숙원사업이 호남권 사업에 포함된 전북은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5+2 광역경제권' 수정 촉구 결

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5+2 광역경제권 사업=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전국을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강원권, 제주권 등 7개 광역권으로 나눠 집중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사업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도시업프로젝트'와 전략산업을 축으로 한 '선도산업' 등이다.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5층  
062-363-700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363-7000

5면 승문했다 그래서 7을 만들었다  
New Infiniti GT Sedan

**Noble Motors GRAND OPEN**

062-363-7000

INFINITI